

#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자세와 책임

허 문 영 (평화한국 대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논의가 대세다. 연초부터 도하신문 지면에 넘친다. ‘통일은 대박’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1.6) 발언이다. ‘통일이 미래다.’ 조선일보가 1달 이상 특집기사로 연재하고 있는 주제이다. ‘준비해야 하나가 된다.’ 동아일보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표제어다. 분단 70년이 다가오도록 우리는 통일비용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현실안주의 이기적 삶에 익숙한 채 고통가운데 있는 북녘동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격변의 해 갑오년을 맞이하여 120년 전 구한말 국권상실과정과 60년 전 분단민족사를 반성케 하는 의미있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통일은 대박’구호는 통일비용을 우려하는 마음을 일시에 뒤엎었다. ‘통일이 미래다.’슬로건은 통일에 소극적인 자세를 흔들어 놓았다. ‘준비해야 하나가 된다.’ 그렇다. 준비 못한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일이 있다.

과연 혹자들이 주장하듯이 김정은정권이 붕괴되면 한국주도의 흡수통일이 가능할까? 안타깝지만,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동독 배후세력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편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의 동맹국가인 중국은 지금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G-2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주민들 또한 여전히 한국을 ‘희망의 등대’로까지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 우리분단은 3중적 의미가 있다. 남북한 민족분단, 미중 패권대결, 해양국가(미일)대륙국가(중러)의 지정학적대치가 중첩되어 있다. 평화통일 되려면 반드시 주변4국의 지지와 협조, 북한동포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상황도 녹록지 않다. 3가지 폭풍이 충돌하는 절대폭풍(Perfect Storm)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사이 북한-안보-경제 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폭압과 세뇌로 북한체제를 이끌고 있는 김정은정권이 중장기적으로 만성적 경제난과 회복기대감 상실에 따른 민중폭동 또는 IT 세계화추세 속에 정보유입으로 각성된 시민혁명 등을 겪을 때, 체제붕괴상황에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자포자기적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유일초강국 미국에 대한 중국의 국력추월이 진행되면서 영토분쟁(중일 조어도분쟁, 한일 독도분쟁, 러일 북방4도분쟁, 한중 이어도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아베정부의 극우도발정책,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증강정책이 충돌될 때, 파멸의 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폭풍이다. 글로벌컨설팅업체 맥킨지도 한국의 최대위기가 북핵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흥국 외환위기, EU국 재정위기, 미국 양적완화회수정책, 중국 경기둔화로 우리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30년에 따른 중산층 몰락과 양

극화 현상 심화, 청년실업 만연, 실버세대 궁핍화가 맞물릴 때 이미 이념·지역·계층·세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에 처하고, 절대폭풍으로 풍비박산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절대폭풍을 극복하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환경 조성, 능력배양, 의지함양이 필요하다.

**첫째, 복음통일 환경조성을 위해 평화의 사도(Peace Maker)로서 균형십자외교와 평화목자외교를 전개하자.** 균형십자외교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접점에 있는 한반도가 미·중·일·러 주변 4국 모두와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평화번영 지대가 되도록 하는 외교를 뜻한다. 평화목자외교는 국가간 패권쟁탈을 초월하여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외교이다. 핵무기개발을 통해 전투력을 키워가는 ‘독사’ 북한과 4마리 맹수인 ‘곰’러시아, ‘사자’중국, ‘악어’일본, ‘독수리’미국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살 길은 ‘목자’로 발전해서 맹수들의 전쟁을 끝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둥구는 세계’(사 11:6; 65:25)를 이뤄가는 데 있다. 북한의 공산화 통일전략과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확대경쟁 외교의 각축 속에서 우리는 복음적 평화로 남북한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를 끊임없이 구축하여 평화통일을 이뤄나가자. 이를 위해 동아시아 선교 강화와 국제평화회의 개최를 통해 미국의 재복음화와 중국의 복음화 그리고 쓰나미 이후 좌절하고 있는 일본선교와 러시아선교를 적극 추진하여 동아시아 복음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자.

**둘째, 복음통일 능력을 키우기 위해 흡수통일아닌 변혁(Transform)통일을 추구하자.** 통일한국은 자유·평등·정의·사랑·평화가 구현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나라는 남한체제 확산론이나 남북한체제 수렴론을 넘어, 남북한체제 변혁론적 접근으로만 가능하다.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희생된 우리의 어린 아들 딸들을 포함한 300명 이상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오늘의 한국사회로는 통일한국의 희망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난맥상과 한국교회의 무기력함을 민낯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이들의 희생을 승화시켜 대한민국의 질적 성숙과 한민족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이 일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물론 세계가 놀랄 헌신과 노력으로 고도압축성장을 통한 산업화와 반독재투쟁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귀한 세대이다. 그러나 출세·성공지상주의와 배금주의로 치달으면서 공동체적 평강을 이루는 일에 소홀하였음도 이제는 반성해야 한다.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을 바꾸려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사회를 선취한 통일한국의 이상사회로 만들어 가자. 북한동포들에게 함께 살고 싶은 희망의 나라가, 세계인들에게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경우, 접촉을 통한 변화를 통해서 독중심의 통일을 이뤄낸 브란트식 대북정책(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과 경쟁을 통한 변화를 통해 소련의 붕괴를 이끌어낸 레이건식 대북정책(상생공영정책)의 한계를 극복한 제3의 정책인 한국식 변혁적 대북정책을 적극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말씀에 기초한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자.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교육,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나라를 세우기 위해 말씀에 기초한 영역선교를 이체 활발히 준비해야 할 때다. 개교회로는 어렵다. 연합해서 일어나야 한다.

**셋째, 복음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통일선교아카데미를 개최하자.** 사분오열된 우리사회를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 교회가 노력하자. 거대담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하나님나라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조롱과 멸시를 넘은 상생적 태도를 교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설교하고, 연민적 눈물만 지나치게 유도하거나 극단적 분노만 촉발시키는 감정적 대북접근을 자제케 하자. 한국교회는 남북한의 체제를 초월하는 민족교회로서 화해자(peace maker)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절대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전쟁과 수많은 무력 도발, 사람 납치, 관광객 저격,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한 북한을 포용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게다가 '자유' 중심의 국가 발전을 이룩해 온 대한민국과 '평등' 중심의 체제 발전을 도모해 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 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박애' 곧 '사랑'의 가치 안에서는 둘이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절대사랑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못박혀 죽으시면서 담당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도 따라, 북녘 동포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 한다. 나아가 21세기 세계선도국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케 하자.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태평양시대 중심국가로 일어날 통일한국이 어떤 국가적 정체성을 갖고 세계사에 기여할 것인지를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과거 패권국가들과 같은 Pax Koreana가 아닌 새로운 선도국가로서의 New Peace Koreana 시대를 열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 속 한국역할이 한국인의 생각보다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음을 많은 해외석학들이 강조하고 있다.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후후발 추격국가에서 새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힘을 기울여 복음통일 기도운동을 확산시키자.** 박근혜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분단 70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정은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잘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2015년은 우리민족이 국토분단 포로로 잡힌 지 70년 되는 해다. 2015년 8월 15일 평양에서 대성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자. 2018년은 체제분단 포로, 2023년은 민족분단 포로로 각각 70년 되는 해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과 북한 동포들이 기쁨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진실함과 꾸준함으로 노력하자. 모든 문제를 단숨에 풀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은 반드시 있다. 세계 모든 문제가 농축되어 있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풀어낼 때, 우리는 민족숙원을 달성할 뿐 아니라 열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나라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1~6)